

Jean Toomer의 *Cane* 연구

— 융합과 일탈에의 이중적 비전

천 승 결

I.

Jean Toomer의 *Cane*은 미국 흑인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하나의 사건으로 자리매김될 만하다. 그 중요함은 이 작품이 지닌 문학적 비중의 무거움 때문이요 그 독특함은 이 작품을 쓴 작가나 이 작품의 범상치 않은 유별남 때문이다. 그리고 *Cane*의 출현을 하나의 문학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충격적일 만큼의 그 독창적인 특성 뿐 아니라 그만큼 빼어난 문제작을 쓴 유능한 작가가 많은 학자와 비평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Cane*을 거의 유일한 작품으로 남긴 채 사실상 문단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이전의 흑인문학의 전통에 비추어볼 때 *Cane*은 여러 가지 점에서 파격적이다. 우선 흑인문학의 정석처럼 다루어온 흑백 대립의 전통적인 인종적 주제로부터 *Cane*은 많이 벗어나 있고 따라서 기존의 프로파간다 즉 항변문학이라는 흑인문학의 전통적 기준에서 보면 이 작품은 매우 이단적이고 파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Toomer의 문학적 후견인이라 할만한 Waldo Frank는 1923년 *Cane* 초판의 서문에서 인종 문제의 정치성을 초월한 그 예술성을 오히려 이 작품의 장점으로 강조하여 흑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시인으로서 궁극적으로 미의 형상화라는 예술적 주제를 추구하는 작자의 예술가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¹⁾ 이 작품의 또 하나의, 그리고 더욱 두드러진 파격성은 이러한 예술가적 태도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 형식상의 실험에서 드러난다. 이미지리와 상징, 생략 기법을 과감히 구사하는 독창적인 시적 문체와 시, 소설, 희곡 등 기존의 장르 구분을 자유롭게 뛰어넘는 표현 형식의 신축성과 유연성은 그 실험의 대표적인 성공적 산물이다.

작품의 주제나 형식 즉 텍스트 자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쓴 작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 역시 파격적이다. Toomer는 흑인으로서서는 아주 드물게

1) Frank Durham ed., *The Merrill Studies in Cane* (Columbus: A Bell & Howell Co., 1971), p. 18.

2 □ 천승걸

Louisiana주의 부지사로서 지사 대행의 고위직에까지 오른 P.B.S. Pinchback의 외손자로서 이른바 엘리트 가문 출신이며 거의 백인에 가까운 만큼 피부색이 희어서 어린 시절을 주로 백인 사회에서 보내며 자랐다. 이러한 가문과 성장의 배경은 그의 인종적 정체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oomer는 한 잡지사의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아마도 일곱 개 종족의 혼혈일 것”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Racially, I seem to have (who knows for sure) seven blood mixtures: French, Dutch, Welsh, Negro, German, Jewish, and Indian. Because of these, my position in America has been a curious one. I have lived equally amid the two race groups. Now white, now colored. From my own point of view I am naturally and inevitably an American. I have strived for a spiritual fusion analogous to the fact of racial intermingling. Without denying a single element in me, with no desire to subdue one to the other, I have sought to let them function as complements. I have tried to let them live in harmony....

이어서 그는 Georgia 방문 이후²⁾ 흑인들의 삶에 대하여 점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에 빠져들고 있음을 토로하지만 결코 자신이 흑인임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1921년 Waldo Frank와 Georgia 여행을 떠나기 전 Frank에게 보낸 Toomer의 편지와, 1923년 Toomer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출판사 편집인인 Claude Bennett에게 보낸 Toomer의 답장은 흑인이라는 그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아마도 그 나름의 가장 분명한 언급의 예가 될 것이다.

... At whatever town we stay, I'll have to be known as a Negro. First, only because by experiencing white pressure can the venture bear its fullest fruit. Second, because the color of my skin (it is nearly black from the sun) at the present time makes such a course a physical necessity. ...³⁾

.... In so far as the old folk-songs, syncopated rhythms, the rich sweet taste of dark-skinned life, in so far as these are Negro, I am, body and soul, Negroid. My style, my esthetic,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my

2) 남부 흑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보고 싶어했던 Toomer는 1921년 여름, 당시 흑인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던 Waldo Frank와 함께 Georgia 농촌 지역을 방문함.

3) University of Pennsylvania Library의 Waldo Frank Collection 소장인, Jean Toomer가 Waldo Frank에게 1921년 8월 15일에 보낸 편지. *The Merrill Studies in Cane*, p. 4에서 재인용.

attempt to fashion my substance into works of art⁴⁾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Toomer는 필요에 따라 자신이 흑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전자의 경우)과 흑인의 정서와 정신을 공유하고 있음(후자의 경우)을 시사하는 것일 뿐 자신이 인종적으로 흑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Toomer의 이러한 회피적 태도는 *Cane*의 출간 후 Georges Ivanovitch Gurdjieff의 이른바 초월적 신비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면서⁵⁾ 더욱 더 굳어진 감이 없지 않은데, Gurdjieff의 신비주의 사상이 요구하는, 자아 의식에서 세계 혹은 우주 의식으로 자아의 경험세계를 확대해 나가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내적 성찰의 과정이 인종 등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사소한 것으로 쉽게 초월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Toomer가 그 이상 더 *Cane*과 같은 작품을 쓸 수 없게 되고 그의 말년의 삶이 미스테리 속에 묻혀 버리게된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Jean Toomer의 *Cane*은 이와 같은 그 파격성과 유별남, 그 신화적 요소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해온 감이 없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이 작품의 정당한 문학사적 의의를 검증해 보려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

II.

*Cane*을 처음 접할 때 독자들을 먼저 당황케 하는 것은 수록된 작품들의 무질서해 보이는 파편성(fragmentary)과 모호한 그 장르적 정체성이다. 단편 소설들의 모음인가 하면 갑자기 시들이 끼어 들고, 소설로 분류될만한 작품들에게도 시적

4) Fisk University의 Toomer Collection 소장의, Jean Toomer가 Claude Bennett에게 1923년 4월 29일에 보낸 편지. *The Merrill Studies in Cane*, p. 8에서 재인용.

5) Gurdjieff(1874-1949)는 Russia 태생의 초자연적 신비주의자로, 1922년에는 France의 Fontainebleau에 연구소를 세우고 1924년에는 뉴욕에서 試術會를 가지기도 하면서 Toomer 등 많은 추종자를 양성하였음. Toomer는 *Cane*을 출간한 다음 해인 1924년 Fontainebleau 연구소에서 여름을 보내기도 하였음. Arna Bontemps은 Gurdjieff의 신비주의 사상을 "a system of teaching by which one sought to attain through instruction and discipline new levels of experience, beginning with the difficult first step to self-consciousness and progressing to world- and possibly cosmic-consciousness." 라고 요약하고 있음. (Jean Toomer, *Cane* (New York: Harper & Row, 1969) p. xiii 참조)

인 혹은 희곡적인 요소들이 진하게 섞여 있고, 마지막 장을 이루고 있는 "Kabnis" 같은 작품의 경우 중편소설인지 희곡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물론 *Cane*의 이런 요소는 *Cane*이 그 동안 발표된 여러 종류의 글들을 한데 묶은 것이라는 사실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ane*은 Washington Irving의 *Sketch Book*처럼 여러 개의 글들을 평면적으로 그저 모아 놓은 것도 아니고, 모음글들의 경우 보통 그렇듯이 시와 소설 등 기존의 장르별로 작품들을 분류하여 묶어 놓은 것도 아니다. *Cane*은 표면적인 파편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배열 이상의 어떤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는 기존의 장르 개념을 초월하여 어떤 주제 의식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Toomer는 *Cane*을 통하여 Sherwood Anderson의 *Winesburg, Ohio*처럼, 그리고 훗날의 Richard Brautigan의 *Trout Fishing in America*처럼, 독창적인 하나의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Toomer는 Sherwood Anderson과의 교감을 통하여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⁶⁾ 아마도 Anderson의 *Winesburg, Ohio*는 *Cane*의 형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Toomer는 기존의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음으로써 *Winesburg, Ohio*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형식상의 실험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얼핏 개개의 작품은 단편적으로 혹은 파편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Cane*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구분된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부 Georgia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주로 흑인 여자들의 삶을 묘사한 1부, Washington D.C.와 Chicago 등 북부 도시를 배경으로 주로 흑인 남자와 여자들의 인간관계를 엮은 2부, 그리고 북부에서 남부로 돌아온 Kabnis라는 인물의 의식을 다른 여러 인물들과의 교감을 통하여 조명하는 3부가 그것이다. 1부는 마치 *Winesburg, Ohio*가 중서부 Ohio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삼듯이 남부 Georgia의 한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무리 여성들의 초상화를 그려 보인다.⁷⁾ *Winesburg, Ohio*의 여러 주인공들처럼 이들 역시 대체로 '그로테스크'(grotesque)한 인물들로 작

6) 1922년 Toomer가 Waldo Frank에 보낸 편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Sherwood Anderson has doubtless a very deep and beautiful emotion by way of Negro. Here and there he has succeeded in expressing this. But he is not satisfied. He wants more. He is hungry for it. I come along. I express it. It is natural for him to see me in terms of this expression. ..." *The Merrill Studies in Cane*, p. 2에서 재인용.

7) 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일련의 초상화를 그려 보이는 이런 작품의 효시는 *Winesburg, Ohio*보다 4년 전에 출판된, Edgar Lee Masters의 *Spoon River Anthology*(1915)인데 *Cane*도 *Winesburg, Ohio*처럼 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자는 그들의 불행하게 뒤튼린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공감과 연민이 담긴 따뜻한 어조로 담담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6개의 단편소설과 10개의 시들로 구성된 1부의 첫 작품인 "Karintha"는 고도로 절제된 언어와 상징적인 시적 이미지로 시와 산문의 정교한 조화를 이루어낸 가작으로서, 앞으로 펼쳐질 *Cane*의 세계를 포괄적으로 예시(豫示)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시와 산문을 조화롭게 엮는 이 작품의 독특한 언어 형식, 지는 해와 땅거미(dusk)의 반복되는 진한 이미지, 그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사라짐, 혹은 애잔한 상실감,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목화꽃(cotton flower), 부드러운 향기의 솔잎(pine needle), 가느다르게 피어오르는 제재소의 톱밥 연기(smoke)의 이미지들이 마술적으로 이루어내는 Georgia의 아름다운 농촌 풍경은 *Cane* 전반(全般)에 걸쳐 의미심장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산문적으로 요약하자면 "Karintha"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의 못 남성들의 섹스의 대상이 되어 20의 꽃다운 나이에 이미 수많은 결혼의 실패를 겪고, 숲 속에서 사생아를 낳고, 결국 창녀처럼 영락해 버린 Karintha라는 한 흑인 여성의 어둡고 불행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첫 부분의 "해질녘 땅거미처럼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carrying beauty, perfect as dusk when the sun goes down)" 어린 Karintha의 순수한 이미지는 마지막 부분의, 온갖 불행을 겪고 난 20세의 Karintha의 모습에 다시 한번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고, 독자들은 그 애잔한 슬픔의 잔상이 일으키는 아름다움을 공감하게 된다. 어둡고 추하기만 할 수도 있는 Karintha의 짓이겨진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의해 줄곧 왜곡되고 파괴되면서도 사랑이 지니고 있는, 그리고 지녀야 하는 본질적인 순수한 생명력이 Karintha의 삶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구현의 성공은 작가가 구사하고 있는 시적 이미지, 예컨대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한줄기 섬광(a wild flash that told the other folks just what it was to live)" 같은 열두 살의 Karintha의 모습, "빛 속에 번뜩이는 검은 새처럼 생생한 한 가닥의 색깔(a bit of vivid color, like a black bird that flashes in light)"인 Karintha의 퍼뜩 스쳐가는 모습, 그녀의 자궁에서 아기가 그 위로 떨어져 내린 "부드럽고 향긋한 솔잎 침대" 등의 빼어난 시적 이미지들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ne*의 첫 이야기로서의 "Karintha"의 또 하나의 중요성은 섹스의 주제와 관련된다. *Cane*이 기존의 흑인 소설들과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섹스의 주제를 강조한 점일 것이다. 기존의 흑인문학에서 거의 금기시되어 온 섹스의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솔직하고 과감하게 다룬 *Cane*의 혁명적인 선구적 역할을 W.E.B. DuBoi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world of black folk will some day arise and point to Jean Toomer as a writer who first dared to emancipate the colored world from the conventions of sex. It is quite impossible for most Americans to realize how straight-laced and conventional thought is within the Negro World, despite the very unconventional acts of the group. Yet this contradiction is true. And Jean Toomer is the first of our writers to hurl his pen across the very face of our sex conventionality.⁸⁾

“Karintha”에 이은 “Becky” 역시 섹스에 의해서 희생된, 흑인 사생아를 들썩이나 낳고 마을에서 쫓겨나 신작로와 철로 사이의 섬 같은 자투리땅에서 홀로 살다가 자신의 오두막의 무너진 굴뚝에 깔려 죽어간 한 불행한 백인 여성의 이야기이다. “Karinth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아래의 산문시 같은 요약문에 이 작품의 주제가 잘 농축되어 있다.

Becky was the white woman who had two Negro sons. She's dead; they've gone away. The pines whisper to Jesus. The Bible flaps its leaves with an aimless rustle on her mound. (*Cane* p. 8)

Becky는 흑인 사생아를 낳음으로 해서 백인과 흑인 사회 모두에서 쫓겨나고 결국 백인과 흑인 모두를 저주하며 마을을 떠난 두 아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지만 남몰래 오두막도 지어 주고 음식도 전해 주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의미 깊게 계속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삭이는 소나무”의 이미지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막연히 공유하는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작자의 기원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Barlo가 무너진 굴뚝 더미, 즉 그녀의 무덤 위에 올려놓은 성경의 책장이 바람결에 하염없이 바스락대는 마지막 이미지는 그러나 그 기원이 속절없는 공허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자의 허무에의 예감을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Becky의 비극적 운명이 수동적이라면 뒤이은 “Carma”의 여주인공 Carma의 운명은 자신의 능동적 행동의 업보라는 점에서(그녀의 이름에서 독자들은 “업보”의 의미를 가진 ‘karma’라는 단어를 곧 떠올릴 것이다) 더욱 비극적이다. 이

8) W.E.B. DuBois, “The Younger Literary Movement.” *The Merrill Studies in Cane*, p. 41.

이야기는 남편이 계약 노동으로 타지를 떠돌아다니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와의 다툼 끝에 아내의 정부를 죽이고 감옥에 간다는, 어찌 보면 작자 자신이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순전히 멜로드라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Carma는 그런 멜로드라마의 상투적인 여주인공과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짐짓 멜로드라마임을 강조하는 작자의 역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흙먼지 길에서 마차를 익숙하게 몰고 남자처럼 기운이 세고 건장한, 남편과 다툼 후 총을 들고 뛰쳐나와 사탕수수 밭에서 자살을 가장하는 격정적인 Carma는 강인한 여전사 같은 인물이다. 작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Carma에 대하여 오히려 미묘한 동정적 태도를 보이는 데 작자의 이런 태도는 Carma와 같은 인물형에 대한 작자의 긍정적인 시각을 암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Carma의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사같은 그녀의 모습에서 작자는 아마도 강인하고 열정적이고 원시적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흑인 여성상을 창출해내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Carma의 모호한 처리는 이 작품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흑인 여성상의 원형으로서의 Carma의 형상화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Carma”에 뒤이어 등장하는 “Fern”의 여주인공은 눈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Face flowed into her eyes. Flowed in soft cream foam and plaintive ripples, in such a way that wherever your glance may momentarily have rested, it immediately thereafter wavered in the direction of her eyes.

Fern의 이야기는 그녀의 눈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Fern의 눈은 아마도 육감적인 열정과 원시적인 활력을 담고 있을 Carma의 눈과는 달리 모든 것이 그 안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것을 그 안에 포용하는 마술적인 눈이다. 그녀의 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찾지 않으며 또한 아무 것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쉽게 허용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람들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눈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많은 사내들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부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은 그들에게 그녀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켜 그녀의 처녀성을 보존케 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자가 뭔가를 찾을 때 그녀의 눈은 거부한다(when a woman seeks, her eyes deny)”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Fern이 찾는 대상은 가시적인 물질적 육체적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며 그녀에게 그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보통 사내들은 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화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Fern의 신비로운 눈에 이끌려 그녀에게 접근해 보려는 그의 상투적인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북부로 돌아온 화자는 그녀에게 “뭔가 훌륭한 일(some fine unnamed thing)”을, 아마도 그녀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녀의 이름을 남부 Georgia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한다. *Cane*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에서 일인칭 화자를 작품의 주요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Fern의 눈이 상징하는 그 소중함을 마치 작자가 직접 개입하여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Fern의 눈이 상징하는 것은 육체적 물질적 한계를 초월한 “범신론적 경지에 가까운 자연의 정신적 본질(the spiritual essences of nature that almost bordered on pantheism)”⁹⁾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Fern의 모습과 그녀의 노래는 “유대인 성가대 선창자(Jewish cantor)”의 이미지와 반복적으로 연결되며¹⁰⁾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Fern의 이러한 가녀리지만 고아한 정신적 이미지는 Carma의 원시적이고 열정적인 육체적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Fern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고아한 정신적 본질이 흑인들에게 결여된 것으로 인식되어 온 통념을 전복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뒤이은 “Esther” 역시 처녀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흑인 여성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Esther는 타의적 요소에 의한 성적 억압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Fern의 경우와 다르다. Fern의 처녀성이 육체의 천박성을 초월한 정신적 추구의 결과물로서의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반하여 Esther의 처녀성은 피부색, 사회 계층 등 자기 외적 요인이 가져온 소외감, 그런 소외감이 더욱 부추긴 신경증적인 성적 환상의 결과물로서 그녀의 삶을 더욱 피폐케 만드는 부정적 의미를 전한다. Esther의 처녀성이 암시하는 이러한 불모성 혹은 불임성은 아기에 집착하는 그녀의 신경증적 환각 작용 속에 역설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sther의 비극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환각 속의 자신의 아기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서 드러나듯 성 자체에 대하여 그녀가 느끼는 강박증적인 죄의식, 그리고 그녀를 절망의 늪에 함몰시킨 그녀의 이상인 King Barlo의 타락이다. Barlo의 타락은 Esther와의 관계를 떠나 그 자체로서도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신앙심 깊은 인도의 수행자처럼, 그리고 건장하고 당당한 아프리카 후

9) Clifford Mason, “Jean Toomer’s Black Authenticity,” *Black World*, Vol. 20, No. 1 (November 1970), p. 74.

10) 예컨대 “But at first sight of her I felt as if I heard a Jewish cantor sing.” (p. 28) “And then she sang, brokenly. A Jewish cantor singing with a broken voice.” (p. 32) 이탤릭체는 필자.

예의 상징처럼 우리러본 King Barlo가 술과 여자와 담배 연기에 파묻힌 마지막 장면은 흑인 사회의 종교적 타락과 흑인 정체성의 상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Barlo의 타락을 통하여 암시된 이러한 인종적 주제는 1부의 마지막 작품인 "Blood-Burning Moon"에서 흑백 관계의 갈등이라는 흑인문학의 전통적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 이야기 역시 남녀간의 성 문제를 다룬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다른 이야기들과 케를 같이 하지만 한 흑인 여자를 사랑하는 두 남자를 각각 흑인과 백인으로 설정하여 두 사람간의 격렬한 결투, 그리고 결국 잔혹한 린치와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인종적 갈등을 이야기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뭇 다르다. 또한 다른 작품들이 서정적 묘사를 좀더 중시하고 있다면 이 작품은 서사적이고 극적인 내용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이 작품이 1부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부는 남부 농촌을 배경으로 흑인들의 삶의 진솔한 모습과 그 삶의 저변에 깔린 흑인 정신의 정수를 그려 보이고 있는 바, 1부를 마무리하는 이 작품이 마지막으로 흑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흑백 갈등의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은 아주 적절하고 온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흑백 갈등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서사적 내용과 극적 묘사를 통하여 더욱 실감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임을 이해하기 또한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작자는 이 전통적인 흑백 갈등의 문제를 결코 상투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백인 가해자와 흑인 피해자를 악과 선의 구도로 대립시키는 정석적인 플롯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백인 청년인 Bob Stone도 흑인 청년인 Tom Burwell과 마찬가지로 남부에 밀어닥친 산업화 물결의 희생자일 수 있으며 두 남자 사이에 끼인 흑인 여성 Louise 역시 일방적인 희생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두 남자에 대한 가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작자는 끔찍한 린치 행위 등 흑백 갈등의 잔혹한 폭력을 다룬 이 산문적 이야기를 햇빛으로 타오르는 붉은 달, 밤 공기에 담긴 끓인 사탕수수의 달콤한 향기, 어둠 속으로 깔려 퍼지는 여인네들의 음울한 노래 소리 등의 반복적 이미지를 통하여 서정적이고 정감적인 시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서사와 서정, 그리고 산문과 시의 조화를 통하여 흑인의 삶의 서사적 내용과 서정적 정서를 탁월하게 아우르며 흑인 경험의 정수를 아주 풍요롭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1부에 수록된 10개의 시들 역시 이러한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Karintha"에 뒤이은 "November Cotton Flower"에서 황량하고 추운 겨울철에 피어난 아름다운 목화꽃의 안쓰러운 운명은 Karintha의 그것을 상징하며 "Fern"에

이은 "Evening Song"에서 꿈을 꾸는 Cloine이라는 여인은 Fern의 이미지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Esther" 다음에 실린 "Conversion"이라는 시는 "Esther"에서의 종교적으로 타락한 Barlo의 모습을 고도로 절제된 풍자적 표현으로 실감 있게 회화화하며, 마지막 "Blood-Burning Moon" 앞에 실린 "Portrait in Georgia"는 린치를 당한 흑인의 초상화를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함으로써 "Blood-Burning Moon"에서의 흑백 갈등의 비극을 강하게 예시(豫示)하고 있다.

흑인의 삶이 뿌리 내리고 있는, 흑인 정신의 모태인 남부 농촌의 토양을 떠나 작자는 독자들을 이제 II부의 세계, 즉 북부의 도시로 인도한다. 도시의 배경에 걸맞게 "Seventh Street"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II부의 첫 작품은 이렇게 시작된다.

Money burns the pocket, pocket hurts,
 Bootleggers in silken shirts,
 Ballooned, zooming Cadillacs,
 Whizzing, whizzing down the street-car tracks. (p. 71)

호주머니를 괴롭히는 "돈" 몽치와 말쑥한 실크 옷차림의 "주류밀매업자"와 총알처럼 전차길 위를 내달리는 "캐딜락 승용차"로 창황하게 펼쳐지는 "Seventh Street"의 세계는 "해"가 지면서 동쪽 "지평선"에 깔리기 시작하는 "땅거미"의 아름다움으로 조용히 열리는 I부의 "Karintha"의 세계와 충격적인 대조를 이룬다. "금주령과 일차대전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bastard of Prohibition and the War)"인 Washington시의 7번가에서 흑인들은 "회반죽을 한(whitewashed)" 백인 문화에 휩쓸려 흥청망청 타락해 간다. 창녀로 영락한 짓이겨진 삶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Karintha의 모습과 7번가의 흥청대는 흑인들의 천박한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이러한 대조가 아름다운 땅거미로 상징되는 "Karintha"의 자연 세계와 극장, 카바레, 식당 등의 건물로 상징되는 "Seventh Street"의 인위적 세계와의 대조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자연의 세계가 자유로운 열린 공간이라면 도시의 건물들은 구속적인 닫힌 공간인 까닭이다. I부의 이야기가 주로 자연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반하여 II부의 이야기들이 주로 건물 안에서 또는 건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Rhobert"의 시작은 그런 맥락에서 매우 의미깊다.

Rhobert wears a house, like a monstrous diver's helmet, on his head . . .

Rods of the house like antennae of a dead thing, stuffed, prop up in the air: He is way down. He is sinking. His house is a dead thing that weights him down

The dead house is stuffed. The stuffing is alive. It is sinful to draw one's head out of live stuffing in a dead house. (p. 73)

Rhobert의 삶을 옥죄는 그의 집은 자연 세계의 생명력을 결한 죽음의 공간일 뿐이다. 그러나 Rhobert에게 있어서 감히 그 공간을 벗어나려는 생각은 하나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는 그 공간을 고수하며 박제된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백인 부르주아 가치관의 노예로 전락한, “재산 소유 본능의 희생자”¹¹⁾인 Rhobert의 모습은 북부 도시에서 타락해 가는 흑인 중산층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유난히 조소적이고 풍자적인 이 글의 어조는 이러한 Rhobert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력과 정체성을 잃어 가는 도시 흑인의 삶에 대한 작자의 비판과 개탄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Seventh Street”라는 상징적 공간과 “Rhobert”라는 상징적 인물로 II부의 기본 틀을 마련한 후 작자는 이제 구체적인 공간과 인물로 독자를 안내한다. 그 첫 경우가 “Avey”이다. II부의 첫 여주인공인 Avey는 I부의 첫 여주인공인 Karintha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Avey는 Karintha처럼, 그녀의 삶을 지켜보는 화자를 포함한 많은 남자들의 연모의 대상이며,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사는 대학생과 화자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의 연인 노릇을 하며, 그래서 결국은 창녀처럼 영락해 버린 불행한 여자이다. 그러나 불행한 삶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끝까지 간직한 Karintha의 그 순수한 생명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Avey는 Karintha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작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I부의 세계와 II부의 세계와의 차이이다. 화자는 Avey의 무관심, 불성실한 나태, 정서적 육체적 불감증을 거듭 강조한다. Avey가 아무 남자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아무 남자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이러한 결함 때문이다. Avey에게서는 Karintha의 생명력, Carma의 열정, 심지어 Esther의 집념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몇 년이 지난 후 화자가 뉴욕에서 Avey를 찾아 헤매다 실패한 후 워싱턴에 돌아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날이 “동쪽 지평선에 땅거미가 가장 아름답게 깔린” 저녁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 깊다. 그것은 화자가 다시 만나게 된 Avey에게서 “동쪽 지평선에 깔린 땅거미”처럼 아름다운

11) Robert Bone, *The Negro Novel in Americ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p. 85.

Karintha의 그 순수한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가 Avey를 다시 만난 후 그녀와 함께 찾아간 장소 또한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면 고향 땅의 흙먼지가 도시의 메마른 나무에 비옥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곳이다. 그곳에서 화자는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자신들을 진솔하게 표현할 더 큰 삶”에 대한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도저히 충족시켜줄 수 없음을, “그녀의 감정의 물길은 잘못된 수로로 넘쳐흘러 소진되고 있음”을 그녀에게 간곡히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 이야기는 지쳐서 잠든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고아 여인(orphan-woman)”이라고 체념하듯 중얼거리는 화자의 허탈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뒤이은 “Theatre” 역시 워싱턴의 한 극장을 배경으로 Avey와 화자처럼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는 한 남녀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Theatre”는 제목이 암시하듯 극장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리고 “Seventh Street”의 상징적 세계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북부 도시의 대표적인 한 공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구장, 식당, 술집 등 감동이 뒷골목의 삶이 그 벽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흰 벽의 Howard 극장은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백인 부르주아의 퇴폐적 삶으로 흥청대며 빠져드는 공간이다. 그 닫혀진 공간 속에서 흑인 정신의 원천인 춤과 노래는 말초적인 쾌락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극장 지배인 동생인 John과 코러스걸인 Dorris의 관계 역시 그 인위적인 천박함 속에 유산되고 만다. “얼굴의 반은 그늘 속에 감춰진” John의 이중적인 모습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John의 세계의 상징일 것이다. 그 이중적 분리 때문에 John은 “사탕수수밭 사랑”과 “홍수럼 축제”의 진솔한 예찬일 수 있는 Dorris의 춤과 노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남부의 사탕수수 냄새에 대한 풍요로운 상상에도 불구하고, Dorris를 끝내 실망시키고 만다. 이러한 John의 모습을 통하여 조명되고 있는, 백인 부르주아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흑인 중산층 ‘dicty’¹²⁾의 공허한 삶은 II부 작품들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Calling Jesus”라는 짙막한 산문시 같은 다음 작품은 일핏 다른 작품들과 동떨어진 듯 보이지만 북부 도시의 삶에 의해 억압받고 위축된 흑인 여성의 추운 영혼을 덤혀 주고 달래줄 부드러운 목화꽃의 성스러운 이미지로 *Cane* 전체에 상징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는¹³⁾ 목시적인 작품이다. 성스러운 목화꽃의 이 목시

12) ‘dicty’ 혹은 ‘dictie’라는 용어는 ‘흑인 상류층’, ‘흑인 귀족’을 지칭하는 말로 Marcus Garvey 같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함으로 해서 1920년대에 널리 퍼진 유행어라고 함. Barbara Foley, “Jean Toomer’s Sparta”, *American Literature*, Vol. 67, No. 4 (December 1995), p. 772. 주 18의 내용 참조.

적 이미지를 통하여 남부 농촌의 생명력을 환기시킨 후 작자는 다시 북부도시의 삶을 농축해 보여주는 한 폐쇄된 공간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Box Seat” 역시 그 제목이 시사하듯 또 하나의 극장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두 ‘dicty’ 남녀 사이의 사랑의 교통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의식이 강하고 냉소적인 Dan Moore와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는 Muriel의 갈등은 Dan이 찾아간, “사방에서 그를 조여 오는 듯한” 또 하나의 닫힌 공간인, Muriel의 하숙집에서부터 시작된다. Dan과 Muriel은 서로 사랑하는, 좀더 정확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다. Dan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난하게 사는 현상유지의 삶이 최선의 삶이라는 Muriel의 실용적인 순응주의와 속물 근성을 못 견디하고, Muriel은 현실 문제에 별 관심 없이 행동보다는 생각에 몰두하며 현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Dan의 불안정한 태도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Muriel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Dan의 시도는 뒷방에서 마치 감시자처럼 신문을 뒤척대는 집주인 Mrs. Pribby의 방해 행위와 Mrs. Pribby의 권위에 순종하는 Muriel의 저항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만다. Mrs. Pribby가 그녀의 집으로 상징되는 그 닫힌 공간, 닫힌 사회의 권위와 압력을 대변한다면 Muriel은 그러한 권위와 압력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노예성을 상징할 것이다. Muriel의 이런 노예성은 Lincoln Theatre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쇼프로에 따분해 하면서도 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고, 난쟁이들에게 혈투를 벌이게 하는 잔혹스럽고 천박한 투기 쇼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결국 관객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난쟁이 챔피언이 바치는 피묻은 장미꽃을 받아드는 모습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한 Muriel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Dan에게 그녀는 “낯쇠장식의 칸막이 좌석에 갇힌 길 잘 들여진 아름다운 여인 … 노예 여인”(you she-slave, . . . Sweet, tame woman in a brass box seat)일 따름이다. Muriel의 그 모습은 Dan 옆자리의, “촉촉한 흙의 향기”(soil-soaked fragrance)를 풍기는 뚱뚱한 흑인 여자와 의미심장한 대조를 이룬다. Dan은 건장한 그녀의 몸으로부터 튼튼한 뿌리가 뚫어내려 극장의 시멘트 바닥과 아스팔트길을 뚫고 강 밑으로 퍼져 저 남쪽까지 자유롭게 뻗쳐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북부의 자유로운 ‘dicty’ Muriel과 남부 농장의 노예 시절을 연상케 하는 뚱뚱한 흑인 여자의 대조를 통하여 암시되는, 뿌리 뽑힘과 뿌리 내림, 노예스러움과 자유로움의 이 전복적인 대조는 이 작품의, 나아가 *Cane* 전체의 중심 주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Dan은 뚱뚱한 흑인 여자의 그 튼

13) Robert Bone, p. 85 참조.

튼한 뿌리의 생생한 촉감과 그 뿌리의 맥박처럼 격렬하게 뛰는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이 세계를 치유할 “새로운 세계의 그리스도”(A new-world Christ)가 자신의 그 힘찬 맥박으로부터 탄생할 것 같은 환상에 빠지는데, 그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출현에 강박적으로 집념해 온 그가 그 튼튼한 뿌리 내림의 활기와 생명력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감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 장면에서 Dan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난쟁이 챔피언을 대하는 Muriel의 위선적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도 한때는 문둥이었다!”(JESUS WAS ONCE A LEPPER!)고 외침으로써 자신의 그리스도적 사명감을 어느 정도 성취하지만 그 대가가 Muriel과의 사랑의 포기라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II부의 마지막 작품인 “Bona and Paul” 역시 남녀간의 사랑의 실패와 좌절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 흑인 혼혈 남자와 백인 여자의 관계라는 점에서,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남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좌절의 의미는 한층 더 복합적이다. ‘검둥이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증오하는’ 남부의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Bona는 Paul을 좋아하면서도 끝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애정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만다. 두 사람간의 사랑의 실패는 흑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남부 출신 백인이라는 그녀의 태생적 한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녀의 이기적 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지만 그 실패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인종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Paul의 지나친 자의식에 있을 것이다. Bona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그의 자조적 태도나 소외 의식은 바로 흑백혼혈이라는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자의식의 산물이다. 그의 강박적 자의식은 주로 감정의 몰입을 억제하는 지적(知的) 편향성으로 드러나는데 그 지적 편향성에는 자신의 흑인 정체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의 백인 지향성이 잠재해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그의 자조적인 지적 편향성은 백인 지향적 혹은 탈흑인적 자의식의 산물이므로 흑인인 자신을 사랑하는 Bona의 감정에 굴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탈흑인적인 지적 편향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Bona와의 사랑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Paul은 자신의 흑인성에 대한 자의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백인 친구들과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낮은 백인들의 시선에서 자신이 흑인임을 확인하며, Chicago 아파트의 창가에 홀로 서서 Georgia의 빛긴 석양 햇살과 소나무 언덕 숲과 ‘사탕수수의 선율’로 자장가를 부르는 흑인 여인의 풍만한 젖가슴을 꿈꾸는 것이다. 이렇듯 백인 지향과 흑인 귀속의 이중 의식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던 Paul은 Bona와 함

께 *Crimson Gardens*를 나설 때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흑인 수위의 눈빛에 마치 계시라도 받듯이 불현듯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깨닫는다. 그러나 자신의 이중 의식의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 하며 Bona를 이해하고 그녀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려는 그의 다짐은 Bona가 떠나버림으로 해서 결국은 좌절되고 만다.

“Box Seat”에서 Dan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가능성(그리스도적 사명감의 소극적 실천이라는)의 대가가 Muriel과의 사랑의 포기이듯이 이 작품에서도 Paul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가능성(이중적 인종 의식의 조화와 균형이라는)의 대가가 Bona와의 사랑의 좌절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기실 *Cane*에 수록된 거의 모든 작품은 한편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을 방해하는 어떤 부정적인 좌절의 가능성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 *Cane*의 주요 인물들은 ‘융합(integration)과 일탈(transgression)에의 이중적인 충돌’을 동시에 보여주며¹⁴⁾ *Cane*의 강력한 힘은 ‘말끔한 융화(seamless unity)’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렬해진 그러한 융화에의 열망’에서 오는 것이라는¹⁵⁾ Joel B. Peckham의 지적은 바로 *Cane*의 이러한 이중성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ona and Paul”에서 강조하여 보여 주는 이러한 이중적 요소는 마지막 III부인 “Kabnis”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Bona and Paul”은 또한 그 형식에 있어서도 회곡적 요소를 많이 구사함으로써 회곡 작품이라 할 수 있는 III부 “Kabnis”의 전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작품이다.

I부에서 남부 농촌의 삶을, 그리고 II부에서 북부 도시의 삶을 각각 펼쳐 보인 후 III부에서 작자는 무대를 남부 Georgia로 다시 옮겨 북부에서 남부의 학교 교사로 부임해 온 Kabnis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흑인의 삶의 현장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도에 걸맞게 I부나 II부의 이야기들이 한 인물의 비극적 삶이나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주로 다룬 단편적인 내용의 것인데 반해, III부의 이야기는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흑인의 삶을 좀 더 복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 조망 창구의 중심에 위치한 Kabnis는 남부 출신이지만 북부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자신을 북부 흑인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사생아(bastard)’라 비하하는, 자의식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III부의 이야기는 이러한 Kabnis를 중심으로 Halsey, Layman, Hanby, Lewis 등 다양한 유형의 흑인 지식인들이 함께 벌이는 마치 집담회의 담론 같은 양식으로 전개된다.

14) Joel B. Peckham, “Jean Toomer’s *Cane*: Self as Montage and the Drive toward Integration”, *American Literature*, Vol. 72, No. 2 (June 2000), p. 285.

15) *Ibid.*, p. 289.

이 작품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중심 인물 Kabnis에 강렬한 조명을 맞추어 그의 의식 세계와 심리 상태를 심층적으로 묘사해 보임으로써 이야기 전개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Kabnis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첫 장면부터 흑백 색깔의 상징적 대조를 통하여,¹⁶⁾ 그리고 찬바람 소리가 마치 그렇게 전하는 듯한 '백인의 땅에서 검둥이가 노래하네'라는 노랫말을 통하여, Kabnis의 인종적 자의식이 진하게 표출된다. 그는 Georgia의 흰 달빛에서조차 백인의 그림자를 의식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소외감과 고독감, 그리고 그가 떠나 온 북부 도시에서의 '무력한 향수(impotent nostalgia)'를 느낀다. 이러한 인종적 자의식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좌절감으로 발전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은 실체가 없는 '하나의 꿈'일 뿐이며 인공 다리로 뒤통거리는 '인공 인간(artificial man)'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자조감에 빠져들게 한다. 또한 그로 하여금 자신을 인종적, 정신적 사생아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자신에게 고통과 상처를 가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바꾸어 버린 신에 대하여 강한 원망과 적대감을 느끼게 한다. 이따금 그는 자신에게 가운차리라고, 밤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추슬러 보기도 하지만, 곧 자조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고 만다.

Halsey의 집 응접실을 무대로 한 2장에는 Kabnis, 마구 수리점 주인인 Halsey, 설교가이자 교사인 Layman, 세 인물이 등장한다. 주로 Kabnis의 질문에 Layman이 답하고 Halsey가 거드는 식의 대화를 통하여 감동이는 철저하게 감동이일 뿐인 가혹한 인종 차별, 흑인 교회의 광적인 종교적 열정 등 북부와 다른 남부의 여러 상황들이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흑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와 위엄을 간청한 Sam Raymon의 도끼 학살 사건, 백인 린치자들에게 쫓긴 남편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만삭이 된 흑인 여자를 죽이고 배에서 아기를 꺼내 나뭇가지에 아기를 칼로 쪼은 끔찍한 Mame Lamkins 사건은 Kabnis에게 큰 충격을 준다. 더욱이 누군가 창문을 통해 던진 돌멩이에 묶어 보낸 '북부 감동이 썩 꺼지라'는 협박 쪽지는 그를 광적인 공포 상태에 빠뜨려 응접실로부터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게 만든다.

3장의 시작은 그렇게 공포에 질려 마구 도망치는, '어설피게 생기가 넘치는(awkwardly animate)' 허수아비 같은, 매우 희화적인 Kabnis의 모습으로 연결된다. Kabnis는 자신이 마치 옛날의 도망 노예처럼 백인 린치자와 사냥개들에게

16) 이 작품의 첫 단락부터 깨끗함과 따뜻함을 나타내는 흰색, 더러움과 추움을 암시하는 검은색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p. 157 참조.

쫓기고 있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집안으로 숨어들고 뒤쫓아온 Halsey와 Layman은 거의 착란 상태에 빠진 Kabnis를 진정시키려고 애쓴다. Kabnis가 Halsey가 건네 준 술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갑자기 교장인 Hanby가 나타나 학교 구내에서의 금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음날 아침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Kabnis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Hanby와 Kabnis 사이에 잠시 설전이 벌어진 후 Halsey는 Kabnis를 자신이 돌보겠노라고, 내일 정오까지 빗을 갠지 않으면 자신도 그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Hanby에게 으름장을 되놓으며 Kabnis를 거든다. 이런 와중에 Lewis가 들어서며 황급히 달아나는 Kabnis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고 찾아왔음을 밝힌다. '더 강한 Kabnis의 모습이 아마도 그러할 것 같은 모습'으로 어딘가 자신을 닮은 듯한 Lewis에게 Kabnis는 마치 형제에게이듯 직관적인 의식의 교감을 느끼며 그의 팔에 와락 안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냉소적인 자조감은 자신의 그러한 충동을 조롱하며 애써 Lewis를 거부케 한다. 그리하여 다시 이전의 강박 상태로 침잠하고 마는 Kabnis의 모습으로 3장은 끝이 난다.

3장에서는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의 특성이 그들의 대화와 갈등의 상황을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날카로운 지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과 때로 자기 증오 그리고 냉소적인 자조감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현재와의 대면을 회피하는 Kabnis는 '정신적 겁쟁이'¹⁷⁾의 대표적 인물이다. Lewis의 눈에 비친 Kabnis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Kabnis, a promise of a soil-soaked beauty; uprooted, thinning out.
Suspended a few feet above the soil whose touch would resurrect him.
Arm's length removed from him whose will to help ... (191)

이런 Kabnis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이 Halsey인데 Halsey는 여러 면에서 Kabnis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Kabnis가 남부 흑인 사회의 비극적 상황에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며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가는 현실 부적응자라면, Halsey는 그러한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부 흑인의 모멸적인 삶 자체에 굴복한다는 점에서 그 역시 Kabnis와 같은 정신적 겁쟁이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흑인 현실주의자의 또다른 유형, 즉 독선적인

17) Robert Bone, p. 87.

엘리트 현실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Hanby 교장이다. 그는 도덕적 엄격성과 감성적 비정성으로 Halsey와 대조를 보이며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리고 Booker T. Washington을 연상케 하는, 교육을 통한 흑인의 지위 향상과 흑인의 인종적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토로하지만, 남부 흑인의 비극적 상황을 현실로 그대로 수용하는, 훗날 *Invisible Man*의 Dr. Bledsoe를 예감케 하는 그의 백인 동화적 태도는 Halsey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편 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Lewis는 30세 정도의 나이, 이지적인 풍모, '더 강한 Kabnis의 모습임' 직한 Kabnis를 닮은 모습, Kabnis와 이루는 '의식의 직관적 교감', '생생한 꿈으로부터 날카롭게 현현한 듯한' 그의 출현, 곤경에 빠진 Kabnis를 구하러 온 그의 임무 등의 묘사가 풍부하게 암시하듯이 Kabnis를 구원할 그리스도적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2부의 "Box Seat"에 등장한 Dan Moore처럼 3부에서 그리스도적 임무를 부여받은 상징적 인물로서의 Lewi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4장은 한달 후의 Halsey의 가게를 무대로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Halsey와 Kabnis의 일상적인 모습, 즉 실용적인 현실주의자로서의 Halsey와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Kabnis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4장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Halsey의 여동생인 Carrie Kate의 등장과 Carrie가 지성으로 돌보는 지하실 속의 눈멀고 귀먹은 노인의 신비로운 정체에 담겨 있다. Carrie와 노인의 역할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은 Carrie와 노인에게 Lewis의 중요한 관심, 그리고 Lewis의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눈빛을 느끼는 Carrie와 Lewis 사이에 계시처럼 이루어지는 직관적 교감에 의하여 암시되고 있다.

5장은 Halsey의 가게 지하실을 무대로, 남부를 떠나기로 한 Lewis를 초대하여 Halsey와 Kabnis가 Stella와 Cora라는 두 여자와 함께 벌이는 파티 장면을 보여준다. 지하실 한 구석 의자에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예언자적 풍모의 노인의 모습에서 Lewis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끔 '죄'에 대하여 뭐라고 중얼거린다는 그 노인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광대처럼 긴 옷을 걸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술과 여자를 즐기자고 거들먹대며 노인을 빈정대는 Kabnis에게 Lewis는 이런 식으로 사는데 정말 만족해하느냐고 진지하게 물으면서 그 노인은 '과거의 상징이요, 육신이요, 정신임'을 강조한다. 지금은 창녀로 전락했지만 한때는 Halsey의 연인이었던 Stella 역시 그 노인의 모습에서 백인에게 어머니를 빼앗긴 후 노래를 잃고 상심하며 죽어간 아버지의 모습을, 그 과거를, 떠올린다. 한편 Cora와 술판을 벌이던 Kabnis는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Halsey와 Lewis에게 그는 '자신의 영혼에 들어맞는 말들을 만들어 내려고' 애써 왔노라고,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먹고사는 자신의 말들은 악몽에서 빚어진 '뒤틀리고 비틀

리고 기형적인 말들'이었을 뿐이었다고 자조적으로 그러나 얼마큼은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지함은 곧 Halsey와 Cora가 주도하고 Stella와 Kabnis가 함께 빠져드는 방탕스런 주홍 속에 묻혀 버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Lewis는 모든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 버리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의 몸 위로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끼며 밤의 어둠 속으로 뛰쳐나오고 만다.

III부의 마지막 장인 6장은 다음날 이른 새벽의 여명과 함께 열린다. Halsey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들을 깨우고 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하면서 현실주의자로서 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모두들 위층으로 올라간 후 지하실에 혼자 뒤쳐져 남은 Kabnis는 노인의 모습을 보자 또 다시 그를 빈정대며 예의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그러나 얼마큼은 진지해진 태도로 죽음과 죄와 흑인의 삶에 대하여 마치 독백을 하듯 긴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그때 '아침의 싱싱한 활력'과 '순수한 확신'과 '푹푹한 모성'의 화신인 듯한 Carrie가 노인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들어서며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돕겠노라고 말한다. 자신을 돕겠다는 Carrie의 말에 Kabnis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일으킴이지 육신의 일으킴이 아니라고 말하며 교회를 찾으라는 Carrie의 충고에는 자신과 노인에게는 이 지하실이 제격이라고 자조적으로 대꾸한다. 그러나 Carrie는 노인이 비록 눈멀고 귀 먹었지만 모든 것을 다 듣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옛날 사람들의 영혼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때 노인이 머리를 천천히 흔들며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한마디씩 떠듬떠듬,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노인은 이렇게 말끝을 맺으며 다시 침묵과 정적 속에 잠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 거짓말을 한 ... 백인들에게 ... 내려진 죄의 업보(The sin ... whats fixed ... upon the white folks ... f telling Jesus ... Lies.)'. 무슨 계시와도 같은 노인의 이 말과 행동에 Carrie는 눈물을 흘리고 Kabnis는 애써 경멸의 표정을 짓는다. Carrie는 그러한 Kabnis의 돌아오른 뺨을 찬 손으로 어루만지고 Kabnis는 Carrie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릎 꿇듯 주저앉는다. 그러나 기도하며 손을 들어 올리려는 Carrie의 동작은 그 순간 빨리 올라오라고 다그치는 Halsey의 목소리에 중단되고 만다. Carrie는 Kabnis로부터 광대의 옷 같은 그 긴 옷을 벗기는 일을 도와주고 Kabnis가 안전하게 계단을 다 올라갈 때까지 지켜본 후 노인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여, 임하소서'라고 중얼거린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빛 속에 Carrie와 노인의 모습이 한 쪽의 그림처럼 담기고 III부의 이야기는 그 햇빛의 여운과 함께 이렇게 끝을 맺는다.

Outside, the sun arises from its cradle in the tree-tops of the forest.

Shadows of pines are dreams the sun shakes from its eyes. The sun
arises. Gold-glowing child, it steps into the sky and sends a birth-song
slanting down gray dust streets and sleepy windows of the southern town.
(p. 239)

6장의 마지막 부분은 분명 어떤 희망이나 구원을 암시하는 긍정적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Kabnis의 뺨을 어루만져 달래주고 그로부터 광대 옷을 벗겨내는 Carrie의 손길에 담긴 구원의 이미지, '과거'의 상징이요 구원체인 노인 Father John이 끝내 토해낸 수수께끼 같은 말에 담긴 계시적 이미지,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 평화롭고 조화롭게 담긴 Carrie와 Father John의 성상(聖像)적 이미지, 그리고 '아침 햇살이 요람으로부터 솟아오르고' 그 요람으로부터 '금빛 찬란한 아이'의 '탄생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끝 장면의 새로운 탄생과 희망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은 III부 "Kabnis"의 결말에, 나아가 *Cane* 전체의 결말에, 어떤 희망적인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 또한 없지 않다. 우선 구원과 희망의 상징인 그리스도적 인물로 등장하는 Lewis의 역할 실패를 들 수 있다. Carrie Kate의 가능성과 Father John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의 직관력, '더 강한 Kabnis'로서의 그가 갖추고 있는 정신적 용기와 도덕적 힘에도 불구하고 Lewis는 남부 흑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북부로 도피하고 맑으므로써 구원자로서의 그의 입부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주인공인 Kabnis가 끝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가 매듭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을 희망적인 것으로 읽기를 주저케 만든다. 물론 Kabnis는 때로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기도 하지만 곧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고, 광대 옷을 벗겨주는 등의 Carrie의 의미 깊은 행위에도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그 진지함을 회화화시킴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마는 것이다. 아마도 Kabnis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가장 근접했던 순간은 그의 뺨을 감싸주는 Carrie의 손길에 그가 무릎 꿇고 주저앉으며 뭔가 정화감을 느낀 순간이었을 텐데 그 귀한 정화의 순간이 하찮은 Halsey의 외침에 곧 깨어지고 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적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결국 "Kabnis"의 결말은 한편으로는 희망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말은 *Cane*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III부 끝 작품의 결말로서 오히려 아주 적절한 결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흑인의 삶에 내재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다른 한편으로

는 그러한 가능성을 좌절시키는 부정적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것이, 즉 융합과 일탈의 이중적 상황 그리고 융합과 일탈에의 이중적 충동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것이 *Cane*에 담긴 작자의 의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III.

기실 I부부터 III부까지 *Cane*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흑인의 삶에 대한 작자의 이러한 이중적 비전은 3부로 구성된 이 작품의 구조, 그리고 시와 산문 혹은 서정시와 내러티브가 뒤섞인 이 작품의 서술 형식 자체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물론 *Cane*의 모든 이야기들에는 융합의 긍정적 요소와 일탈의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열린 자연을 배경으로 남부 농촌의 삶을 펼쳐 보이는 I부가 특히 흑인 여성들의 삶을 통하여 흑인의 정서와 정신적 토양, 그 토양에 뿌리 내리고 있는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그려 보이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면, 폐쇄된 인위적 공간을 배경으로 북부 도시의 삶을 전하고 있는 II부는 주로 'dicty' 들의 공허한 삶을 통하여 흑인 정신의 생명력과 그 정체성이 백인 부르조아 가치관에 의하여 상실되어 가는 부정적인 모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III부는 북부 도시에서 남부 농촌으로 돌아온 Kabnis라는 복합적 성격의 인물과 주로 엘리트 흑인들인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융합에의 욕구와 그 욕구의 좌절이 혼재(混在)하는 흑인의 삶의 현장을 묘사함으로써 보다 복합적인 작자의 이중적 비전을 암시하고있는 것이다.

정반합 식의 이러한 작품 구조만이 아니라 서술 형식 자체도 작자의 이러한 이중적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oel B. Peckham도 시사하듯이¹⁸⁾ 시와 산문, 그리고 서정적 내러티브와 극적 내러티브를 혼합하는, 그래서 서정시와 내러티브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고 있는 *Cane*의 독특한 서술 형식은 융합에의 욕구와 그 욕구의 좌절이 공존하는 흑인의 삶의 이중성과 그러한 삶을 보는 작자의 이중적 비전을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이중적 비전에 담긴 작자의 의도는 흑인의 인종적 주제를 다루는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즉 전통적인 인종적 주제로 다루어져 온 흑백 갈등, 인종차별의 문제보다는 흑인의 삶 자체에 내재한 이중성과 갈등의 요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자세가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자가 흑백 갈등이나 인종차별 등 흑인이

18) Joel B. Peckham, p. 285 참조.

당면한 현실 문제를 경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I부를 매듭짓는 아주 중요한 작품인 "Blood-Burning Moon"이 흑백 갈등의 폭력성과 잔혹성을 강렬한 서사적 묘사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II부의 "Bona and Paul"이 흑백 갈등의 미묘한 심리적 파장을 심각하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들이다. 특히 "Kabnis"에서, Layman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Sam Raymon' 도끼 학살 사건¹⁹⁾과 'Mame Lamkins'의 끔찍한 태아 살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묘사, 그 잔혹성이 Kabnis에게 주는, 거의 공황 상태에 그를 빠지게 하는 큰 충격은 Toomer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인종 차별의 폭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Toomer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흑인의 삶에 내재한 일탈에의 욕구, 갈등의 이중적 요소 등은 흑백 갈등, 인종 차별 등의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인종적 갈등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Cane*의 여러 이야기에 질게 배어 있는 Toomer의 이러한 인종적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Cane*을 다시 검토한다면 피상적인 걸 읽기로 놓치기 쉬운 이 작품의 숨겨진 많은 진실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걸 읽기의 부정확함과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Cane*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인 작품의 구조와 서술 형식은 단순히 한 서구적, 모더니스트에 의한 파격적인 예술 형식의 실험만이 아니고 인종 문제의 정치성을 초월한 예술성의 승리인 것만은 더더구나 아니다. 또한 흑백 대립의 전통적인 인종적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고 항변 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다 해서 *Cane*을 흑인 문학의 이단적 혹은 사생아적 작품으로 치부하는 것이 얼마나 오도(誤導)적인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oomer가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끝내 모호한 태도를 취한 채 미스터리 속에 사라졌다 해서 정통적 흑인 작가로서보다 신화적 예술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더 강조하는 태도에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기실 Toomer는 흑인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깊이 성찰하고 고민한 작가였다.²⁰⁾ "Bona and Paul"의 Paul이나 Kabnis는 바로 Toomer 자신의 한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다. Paul이 강하게 느끼는 흑백 혼혈의 이중적 정체성에서 오는 소외감, 백인 지향과 흑인 귀속의 이중 의식 사이에서의

19) 1921년 Toomer가 Georgia를 방문하기 불과 반년 전에 한 백인 농장주에 의하여 11명의 흑인 농노가 학살당한 "Williams Farm" 혹은 "Death Farm"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음. Barbara Foley, p. 748.

20) 흑인과 예술가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대하여 깊이 고민한 대표적인 작가로 Countee Cullen, Ralph Ellison 등을 들 수 있다.

갈등과 고뇌, 그리고 Kabnis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흑인의 인종적 상황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고독감과 서자(庶子) 의식, 융합에의 욕구와 동시에 그런 욕구를 좌절시키는 일탈에의 충동, 이러한 것들은, 특히 그 이중적 요소들이 일으키는 갈등의 양상은, 그 자화상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Toomer는 흑인의 외면적 삶보다는 내면적 삶, 흑인의 삶에 담긴 정치적 함의보다는 심리적 정서적 함의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이지 흑인성이나 흑인의 삶 자체를 결코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더욱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성찰과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ane*의 심층적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Toomer가 *Cane*에서 이룩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탁월한 성취를 미국 흑인문학의 정통성의 틀 안에서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